



즉시 배포용: 2021년 9월 2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와 **DE BLASIO 시장**, 뉴욕의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태풍 아이다 구호를 위해 **2700 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

피해 지역에서 선정된 지역사회 단체, 생존한 서류 미비 이민자가 복구 지원을 받도록 지원

선정된 비영리 단체, FEMA 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과 직접 협력

*프로그램은 9월 27일 개시 - 신청 장소에 대한 정보는 **ONA** 핫라인에 [1-800-566-7636](tel:1-800-566-7636) 번으로 문의*

Kathy Hochul 주지사 and Bill de Blasio 시장은 오늘 태풍 아이다로 인한 폭우와 홍수에서 생존한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재난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270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지역사회 단체에게 보조금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며 재난 복구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춘 뉴욕 주민에게 FEMA 개인 지원 프로그램(FEMA Individual Assistance Program) 등의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풍 아이다의 위력을 보면서 피해 주민들이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자금을 통해 그러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로서 FEMA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을 위한 이러한 자금과 관련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지원 격차를 줄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적격 주민들은 회복에 필요한 지원금 신청을 할 것을 권합니다."

Bill de Blasio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태풍 아이다의 엄청난 피해로부터 복구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민 서류 구비 여부에 관계 없이 최근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며 모든 과정에서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ONA)이 운영하며, 브롱스, 킹즈, 나소, 퀸즈, 리치몬드, 서퍽, 웨스트체스터, 록랜드 카운티와 같이 대통령의 주요 재해 선포(Presidential Major Disaster Declaration)로 지정된 카운티에 위치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비영리 단체는 태풍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는 뉴욕주와 뉴욕시가 주민 지원을 위해 비영리 단체와 제휴하면서 이러한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다음 단체가 주민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 **브롱스 - 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 402 East 152nd Street, Bronx, NY 10455
- **브루클린 - Chinese American Planning Council**, 4101 8th Ave, 4th Floor, Brooklyn, NY 11232
- **퀸즈 - MinKwon**, 133-29 41st Avenue, Suite 202, Flushing, NY 11355
- **퀸즈 - Make the Road**, 92-10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 **스태튼 아일랜드 - Make the Road**, 161 Port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 **나소 - Economic Opportunity Commission of Nassau County**, 134 Jackson Street, Hempstead, NY 11550
- **서퍽 - Make the Road**, 1090 Suffolk Ave, Brentwood, NY 11717
- **웨스트 체스터 & 록랜드 - NeighborsLink**, 27 Columbus Ave, Mount Kisco, NY 10549

뉴욕주 국무장관 **Rossana Rosad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풍 아이다는 수많은 주택과 주민의 일상을 파괴했으며 특히 이민자에게 피해가 컸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은 서류 미비 주민에게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활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무 서비스국(Financial Services)의 **Adrienne A. Harris** 감독관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류 미비 뉴욕 주민들은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팬데믹 기간에 뉴욕을 위해 힘써온 중요한 일원입니다. Hochul 주지사가 자금을 확보하여 태풍 아이다의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DFS 직원은 초기 대응 노력에 동참했으며, 오늘 지급되는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을 회복시킬 중요한 재정적 자원이 되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했습니다."

Catalina Cru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많은 주민들은 아이다로 인한 홍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만 25 가구 이상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만한 자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연방 정부는 이민자 자격 때문에 자격이 없는 주민을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가 소외된 뉴욕 주민(Excluded New Yorkers)을 위해 아이다 지원금(Ida Relief Fund)을 마련하여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취약 계층을 위해 인도주의적 노력을 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휴한 비영리 기관들은 2021년 9월 27일 월요일에 지원 서비스를 개시하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적격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은 a) 본인이 FEMA 지원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b) 가족 중에서

지원 대상자가 없어야 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를 입은 주민은 9월 27일부터 ONA 핫라인에 [1-800-566-7636](tel:1-800-566-7636) 번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 시에서 오후 8 시 사이에 전화하거나 제휴한 비영리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핫라인 지원은 200 여 개 언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리소스 허브의 개시를 일전에 발표했으며 ny.gov/ld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허브는 이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과 쉼터, 먹거리 접근 등의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뉴욕 주민을 위한 리소스가 추가되는 대로 업데이트됩니다.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ONA)은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최초로 법률로 규정되어 설립된 이민자 지원 사무국입니다. ONA 는 모든 이주자들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무료 서비스 및 지원을 이용하고 검색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뉴욕 카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 of New York)의 Monsignor Kevin Sullivan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비상 사태와 재난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며 특히 취약 계층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카톨릭 자선단체는 태풍 아이다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도와줄 준비가 되었으며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덕분에 자원과 지원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Neighbors Link 의 Carola Otero Bracco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풍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이민자 자격, 주거 상황, 보험 가입 능력 등에 관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 주민들은 필수 노동자로서 우리 경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Neighbors Link 는 Hochul 주지사가 다른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목하여 태풍 구제 계획을 실행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계 중국인 기획 위원회(Chinese-American Planning Council, Inc.)의 사장 겸 CEO 인 Wayne H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계 중국인 기획 위원회는 뉴욕주와 협력하여 태풍 아이다의 피해를 입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비상 지원을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과 그 가족은 FEMA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리소스로 어려운 시기에 이들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쁩니다."

Make the Road 의 공동 전무인 Theo Oshir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다로 인한 홍수는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뉴욕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연방 재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민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앞장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이 자금을 통해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이웃과 가족들은 주택을 수리하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소 카운티 경제 기회 위원회(Economic Opportunity Commission of Nassau County)의 전무 대행 **Eric Pouls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제 기회 위원회는 재난 발생부터 나소 카운티의 저소득층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주민들은 재난에 특히 취약하며 재난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주거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족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가장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공평한 지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 활동 민권 센터(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의 **John Park**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 민권 센터는 태풍 아이다의 피해를 입은 서류 미비 주민들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지하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태풍 아이다로 발생한 홍수로 배수 시설이 역류하여 심각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연방 정책은 드리머(DREAMers)를 포함한 서류 미비 이민자가 FEMA 재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운데 Hochul 주지사와 de Blasio 시장의 발표는 이민자 자격에 관계 없이 모든 주민들이 태풍 재난이나 팬데믹 지원을 잔인하게 거절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소중한 인간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원이 필요하거나 ONA 의 프로그램과 연결하기를 원하는 이민자들은 이주자 핫라인(New Americans Hotline)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 시에서 오후 8 시 사이에 [1-800-566-7636](tel:1-800-566-7636)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모든 통화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200 개 이상 언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dos.ny.gov/office-new-americans> 를 방문하거나 트위터 @NYSNewAmericans 에서 ONA 를 팔로우하거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YSNewAmericans> 에서 팔로우하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